

“말씀에 인생을 걸어라”

이사야 40:8

하나님께서 절대 불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8)

인간의 삶은 풀이나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시로코’ 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풀들이 다 시들어 죽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던 풀들이 단 하루만에 죽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남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수 6:17)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말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수 6:26)

저주받아 멸망당한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건축을 시작할 때 말아들을 잃게 되고, 마지막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합왕 시절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에 벨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말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왕상 16:34)

벨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기 시작할 때 말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과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찌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합리’의 관점보다 상위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온통 ‘비합리적인 얘기’ 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것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평탄한 길을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일부러 험난한 길을 갈 필요는 없지만,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법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비로소 인재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편안한 사람, 원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더 폭넓은 사람,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비열한 삼촌 라반을 사용하십니다. 라반은 돈을 아끼고자 딸을 팔아먹은 지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라반을 통해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

나라,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를 앞장서도록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언약궤 그 자체는, 외관상 작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 그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게 되었을 때,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독처럼 쌓여 올라 요단강 가운데 길이 마른 땅이 되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가장 앞이나 스스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아닌,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받은 강도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소경 바디매오 역시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 인해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들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고, 또 그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2019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 목자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40 세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가 85 세에 비로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발버둥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취사 선택하여, 말씀대로 살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위의 말씀은 마태복음 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7-8)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